

# 아이가 좋아한다고... 세살도 안돼 스마트폰 이용

### 평균 2.27세 노출... 일찍 접할수록 이용시간 길어 중독엔 또래 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이상행동까지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만 3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초 이용시기가 빠를수록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립 부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를 공개했다.

서울·경기지역의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만 3세가 되기 전인 평균 2.27세에 이미 스마트폰에 노출됐다고

응답했다.

최초 이용한 시기는 26.4%는 3세에, 23.6%는 1세에 처음 사용했다고 밝혔다.

0~2세 영아만 봤을 때 영아의 과반(54.5%)이 1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이용시기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보면 0세는 33.45분, 1세 32.84분, 2세 29.56분, 3세 34.42분, 4세 28.65분, 5세 24.81분으로 대체로 최초 이용시기가 이룰수록 이용시간도 길었다.

전체 응답자의 영유아 자녀 36.7%는 하루

에 평균 30~40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24.4%는 10~20분, 21.7%는 20~30분이라고 답변했다. 매일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영유아도 전체의 9.5%나 됐다.

특히 주 양육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스마트폰에 처음 노출 시기도 이른 편이었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70.9%가 '자녀가 좋아해서'를 꼽았다. '또래와 공감대 형성'(12.5%), '습관적 사용'(6.1%), '정보 검색 등 지식 습득'(4.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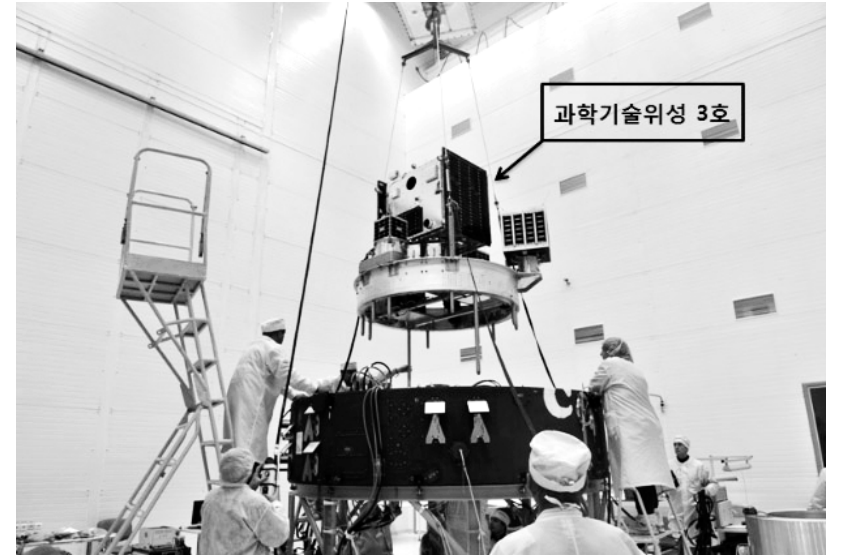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만화(30.5%), 게임(26%), 음악(13.1%), 교육용 콘텐츠(12.1%), 카메라·사진첩(11.7%)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52.8%)은 자녀의 스

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등 가정 내 스마트폰 이용 규칙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영아 학부모 중에서는 규칙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8.1%로 다소 높았다.

부모가 스마트폰 이용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 자녀의 이용시간은 31.5분인데 반해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45.5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영유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뺏으면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개발,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의 법적 규제 조항 구체화, 부모를 위한 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 과학기술위성3호, 오늘 카운트다운

### 한국 최초 적외선 우주관측 위성... 2년간 운영

국내 첫 적외선 우주관측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3호(STSAT-3)'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21일 오후 1시10분(한국 시간 오후 4시10분) 러시아 야스니발 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지난달 24일 발사장으로 옮겨진 뒤 각종 기능 점검과 배터리 충전 등을 끝냈으며, 현재 드네프르(Dnepr) 발사체와 결합하고 발사만을 남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번 발사를 위해 지난달 연구진 15명을 러시아 현지로 파견했으며, 지난 18일 추가로 8명의 발사관리단을 보내 최종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

발사관리단은 "지난 19일 최종 발사 리허설 결과 발사체와 위성 모두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21일 예정대로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우리나라 세 번째 우주관측용 위성이다. 과학기술위성

1호는 지난 2003년 발사 후 2009년 운영을 종료했으며, 과학기술위성 2호는 두 번의 나로호 발사과정에서 궤도진입에 실패했다.

이번에 발사하는 과학기술위성 3호는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MIRIS: Multi-purpose IR Imaging System)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한 천문용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 우주의 초기 상태를 연구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사가 성공하면, 과학기술위성 3호는 앞으로 2년간 고도 600km 궤도에서 약 97분마다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은하의 평면을 스캔, 초기우주의 상태를 밝혀내기 위한 정보를 보낼 계획이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의 지구관측카메라를 이용해 한반도 지역의 해수온도분포, 산불·제난 감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SNS 세계 16억명 사용... 한국 2명 중 1명 꼴

### 네덜란드 63.5% 1위

전 세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16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국민 2명 중 1명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는 19일(현지시간) 올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SNS에 접속한 사용자가 16억1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인구 5명 중 1명 꼴(전체 인구의 약 22.6%)에 해당한다.

이 기관은 2017년까지 SNS 사용자가 23억 3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보면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국민

의 63.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SNS에 접속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노르웨이 63.3%, 스웨덴 56.4%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전체 국민의 54.4%가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덴마크(53.3%), 미국(51.7%), 핀란드(51.3%), 캐나다(51.2%), 영국(50.2%)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가 가장 많은 사용자 증가율을 보였다.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SNS 페이스북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1억 4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인도의 사용 인구가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KT, 우수고객에 새 단말기 25만원 할인

KT는 15개월 이상 우수 고객이 단말기를 교체하면 25만원을 할인해주는 '좋은기변' 행사를 연다.

대상 단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4(LTE-A 모델 포함)와 갤럭시 노트3·2, LG전자의 G2·G프로·GK·뷰3, 팬택의 베가 시크릿노트·베가 아이언 등 10종이다.

연말까지 완전무한67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음 서비스인 지니 1년 무료 이용권도 준다.

자신이 이번 행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KT고객센터(☎ 100)와 올레매장,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美 이통사, 삼성폰 도난방지장치 퇴짜

미국 이통통신사들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도난방지장치(킬 스위치)에 퇴짜를 놔다.

킬 스위치(kill switch)는 고객이 휴대전화를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면 해당 단말기를 다시 쓸 수 없도록 원격으로 완전히 정지(킬)시키는 것이 골자로 삼성은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이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2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에서 킬 스위치 의무화 추진을 주도하는 조지 가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찰총장은 AT&T와 버라이즌 등 현지 이통사들이 삼성의 휴대전화 킬스위치 탑재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에 기본 소프트웨어(SW) 형태로 장착되고 이 과정에서 이통사

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이통사들은 킬 스위치 SW가 해킹되면 정부요인 등 표적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막통'으로 만드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기능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콘 총장은 이통사들이 킬 스위치가 많이 쓰이면 단말기 보험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킬 스위치는 도난 단말기의 재사용을 막아 휴대전화 절도와 장물 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사법 당국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강도사건의 3분의 1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길 정도로 단말기 관련 범죄가 심각하다. /연합뉴스

## 3단계 태양흑점 또 폭발... 울들어 14번째

3단계 태양 흑점 폭발현상이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14번째, 최근 한달 사이에만 8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7시25분께 태양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흑점 1893에서 3단계 태양 흑점 폭발현상이 일어났다고 20일 밝혔다.

폭발은 50분간 지속되다가 오후 8시 15분께 종료됐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야간에 발생해 한반도 상공 전리층이나 국내 단파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미국 GOES 위성에서 관측된 태양입자 유입량은 평소보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태양입자 유입량이 100 배가량 증가하면 태양입자 유입 1단계 경보상황을 발령하나 현재 유입량은 이에 못 미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입량이 적은 경우에도 극한로 운항 항공기나 위성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이처럼 태양흑점 폭발이 빈번한 이유는 올해가 태양활동 극대기의 정점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동구 수기동 | 회사 사정상 급매함

제일 오피스텔 | 문의. 010-4667-9300

<p><b>1층 상가. 25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코너</li> <li>· 현, 편의점 임대 중 (보 3천만원에 월 125만원)</li> <li>· 시세/분양가 - 2억 5천만원</li> <li>· 급매가 - 1억 7500만원</li> </ul>	<p><b>10,12,13층 OP. 29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및 사무실 겸용</li> <li>· 전망 좋음, 주차편리</li> <li>· 시세/분양가 - 1억원</li> <li>· 급매가 - 6500만원</li> </ul>	<p><b>9,13층 OP. 53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전용</li> <li>· 전망 좋음, 코너</li> <li>· 시세/분양가 - 2억원</li> <li>· 급매가 - 1억 3500만원</li> </ul>
--	--	--